

고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가 학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의 이중매개효과와 그릿의 조절된 매개효과

박혜진*, 이창식**
선문대학교 박사과정*, 한서대학교 교수**

The Effects of Academic Stress on Drop-out Intention of High School Students: Doubl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Peer Relationship and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Grit

Hye Jin Park*, Chang Seek Lee**

Doctoral student, Sunmoon University*, Professor, Hanseo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 또래관계 및 그릿을 통하여 학업중단의도에 미치는 메카니즘을 파악하여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대상은 충남의 3개 시군에서 편의표집한 고등학생 283명이었다. 자료분석은 SPSS PC+ Win. ver. 25.0과 SPSS PROCESS macro ver. 4.2를 활용하였으며, 적용된 통계기법은 기술통계, 신뢰도분석, 상관분석 및 조절된 매개효과분석이었다. 연구결과 첫째, 학업스트레스는 학업중단의도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자아존중감, 그릿, 또래관계와는 부적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둘째, 그릿은 자아존중감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증진시키는 상승역할 뿐만 아니라 학업스트레스→자아존중감→또래관계→학업중단의도의 경로를 조절 매개하는 역할을 하였다. 고등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가 학업중단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자아존중감, 또래관계 및 그릿이 학업중단의도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자아존중감, 또래관계, 그릿, 학업중단의도, 학업스트레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esent basic data for preventing drop-out intention by identifying the mechanisms in which academic stress affects drop-out intention through self-esteem, peer relationships, and grit in high school student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283 high school students purposively selected from three cities and counties in Chungcheongnam-do. The data were analysed using SPSS PC+ Win. ver. 25.0 and SPSS PROCESS macro ver. 4.2. The applied statistical techniques were descriptive statistic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moderated mediation effect analysis.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academic stress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drop-out intention, but a negative correlation with self-esteem, grit, and peer relationship. Second, grit not only played a moderating role in enhanc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peer relationship, but also played a moderated mediating role in the path of academic stress → self-esteem → peer relationship → drop-out inten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academic stress of high school students has a direct effect on the drop-out intention, and that self-esteem, peer relationships, and grit can be used as important factors to prevent the school drop-out.

Key Words Self-esteem, Peer relationship, Grit, Drop-out intention, Academic stress

Received 27 Mar 2023, Revised 03 Apr 2023

Accepted 07 Apr 2023

Corresponding Author: Chang Seek Lee
(Hanseo University)

Email: lee1246@hanmail.net

ISSN: 2466-1139(Print)

ISSN: 2714-013X(Online)

© Industrial Promotion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2021년 중학생은 0.5%, 고등학생은 1.5%가 학업 중단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10년 전인 2011년 중학생 0.9%, 고등학생 1.9%보다는 낮은 비율이다. 이러한 수치는 전체 중·고등학생 중 질병, 가사, 품행, 부적응,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제적, 중퇴 및 휴학한 학생의 비율을 의미한다(교육부, 2022)[1].

학업중단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 결과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학업 중단 후 가정 및 학교의 보호 및 관리의 범위에서 벗어나 다양한 유해환경에 접할 수 있고(백혜정, 임희진, 2014)[2], 불규칙한 생활로 인하여 신체적 건강 문제(Valkov, 2018)[3], 우울, 자살 충동, 무기력 등의 정신 건강 문제(Hjorth, Bilgraw, Frandsen, Overgaard, Torp-Pedersen, Njelsen & Bøggild, 2016)[4]를 야기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과의존과 게임중독 증가(윤철경, 최인재, 김승경, 김성은, 2013)[5], 비행에의 쉬운 노출(Neely & Griffin-Williams, 2013)[6], 그리고 이러한 시기가 성인기 이행에 걸림돌이 되는 등 다양하고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따라서 학업중단 청소년의 비율이 감소하고는 있다 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학문적 관심과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업중단의도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원인 파악과 해결을 위한 개입이 필요하다. 학업중단의도의 원인은 다양하나 학업스트레스가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학업스트레스가 학업중단의도 및 학업중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서보준, 이진열, 2018; 김령, 임선아, 2021)[7], 이러한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 또래 관계, 그것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확인하고자 한다.

자아존중감은 자기 존중의 정도(Rosenberg, 1965)[8]인데 자아존중감이 높고 낮음에 따라 학업스트레스를 받는 정도가 다르며(Michie, Glachan, & Bray, 2001; 노충래, 김철희, 2012)[9][10], 학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도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Allen, Hauser, Bell, & O'Conner, 1994; 이경상, 2011)[11][12]. 뿐만 아니라 또래관계 여부에 따라서도 학업스트레스를 받는 정도가 다르며(이지현, 이정윤, 2009; 장영애, 이영자, 2015; 은임선, 2015)[13-15], 또래관계가 좋고 나쁨에 따라 학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도 달랐다(Parker, & Asher, 1987)[16]. 이러한 두 변인이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중단의도와와의 관계에서 매개하는지를 검증하여 학업중단의도를 감소시킬 대안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것은 장기목표를 향한 열정과 끈기(Duckworth, 2006)[17]인데, 다수의 연구에서 좌절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장기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어(Duckworth & Quinn, 2009)[18], 그것이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중단의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나아가서 학업스트레스→자아존중감→또래관계→학업중단의도의 경로를 조절 매개하는지를 검증하여 학업중단의도를 감소시킬 대안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학업스트레스가 학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를 매개변인으로, 그리고 그것을 조절변인 및 조절된 매개변인으로 활용하여 학업스트레스가 학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전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 또래관계 및 그것을 통하여 학업중단의도에 미치는 메카니즘을 파악하여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주요 변인간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그것은 학업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 또래관계를 경유하여 학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 매개하는가?

2. 문헌 고찰

2.1 학업스트레스가 학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

학업중단이란 자퇴, 퇴학, 유예, 면제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것을 말한다(교육부, 2022)[19]. 학업중단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학업을 멈춘 후 일정 기간에 재등록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고 자의적, 타의적, 일시적, 영속적 등 여러 형태를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중립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정태화, 2002)[20]. 또한 학업중단의도는 중단을 하지 않은 상태이나 중단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인데, 학교에 재학 중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학생 본인이 학업을 중단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경

우로 지칭된다(김로라, 이조경, 2016)[21]. 학업중단의도를 가진 청소년은 무단조퇴, 결석과 같은 등교문제, 학업 동기 저하, 불량한 학업태도 등의 양상을 보이며, 이는 부적응적인 학교생활로 이어져 학업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박한샘, 2017)[22]. 또한 학업중단의도를 갖더라도 실제적 학업 중단이 발생하기까지 잠재적 상태가 지속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조기 개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성윤숙, 2005)[23].

학업중단의도의 원인은 다양하나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학업스트레스이다. 학업스트레스란 학생들이 학업으로 인해 유발되는 부적응 심리상태(아영아, 정원철, 2011)[24], 또는 학업, 진로, 수업, 시험, 성적 등에 대한 모든 스트레스 반응으로 정의되는데(Kumaraswamy, 2013)[25], 스트레스로 인하여 학생들은 긴장, 근심, 우울, 초조감 등의 심리를 경험한다(오미향, 천성문, 1994)[26].

학업스트레스가 학업중단이나 학업중단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학업중단의도가 높았으며(서보준, 이진열, 2018)[7], 학업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이 학교생활에 부적응적인 양상을 보이고 이러한 증상이 장기화되면 학업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김령, 임선아, 2021)[27]. 특히 학업스트레스 중에서 학교 및 학업에 대한 거부감, 규율에 대한 갈등 등(이자영, 강석영, 김한주, 이유영, 양은주, 2010)[28]과 수업에 대한 낮은 이해와 학교규칙 준수의 어려움 등(안현희, 이소영, 권해수, 2002)[29]으로 인한 학업스트레스가 학업중단의 더 큰 요인이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학교생활적응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는 학업중단 및 의도의 원인이 되므로 이러한 영향의 매커니즘을 파악하고 해소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2.2 자아존중감의 매개역할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좋아하고 존중하며 가치 있는 사람으로 느끼는 주관적인 평가이자 자기 존중의 정도로 정의된다(Rosenberg, 1965)[30].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의 평가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받지 않으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최명심, 손정락, 2007; Brockner,

1979)[31][32], 자아존중감의 다양한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학업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보면 학업스트레스가 증가하면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성적 문제로서 성적이 하락할 때 가장 위험한 학업스트레스가 증가하고, 과도한 스트레스의 노출은 자아존중감을 낮추고 더 심각할 경우 청소년 우울 및 자살을 유발하였다(Michie, Glachan, & Bray, 2001)[9].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노충래, 김철희, 2012)[10]에서도 학업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을 낮추고, 스트레스 대처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아존중감은 학업중단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 부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Allen, Hauser, Bell, & O'Conner, 1994)[11], 중학생 대상 중단 연구(이경상, 2011)[33]에서 높은 자아존중감은 학교부적응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학업중단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학업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고, 자아존중감은 학업중단의도에 영향을 미쳐 자아존중감이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중단의도와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예측되어 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2.3 또래관계의 매개역할

또래란 신체적, 정신적으로 발달상태가 비슷하고 연령과 성별, 학년에서 유사한 특성을 가지며 서로 상호작용하는 대상을 지칭한다(Santrock, 1990)[34]. 또래의 영향력은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데(Berndt, 1979)[35], 다수의 연구에서 학업스트레스가 또래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즉, 학업스트레스는 또래들과 정서적 친밀감을 깊게 맺지 못하게 하여 사회적 위축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이지현, 이정운, 2009; 장영애, 이영자, 2015)[13][14]. 은임선(2015)[15]은 학업중단의도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높았는데, 여학생이 감수성과 민감성이 높아 학교 스트레스 상황을 더 빨리 감지하여, 학업을 중단하고자 하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한편 또래관계가 학업중단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관계의 어려움은 청소년기의 학교

중퇴, 비행 및 성인의 범의 및 정신병리를 야기하였고 (Parker, & Asher, 1987)[16], 같이 다니는 친구 중에 자퇴한 친구가 있을 때 학업을 중단할 가능성이 크며, 실제로 친구를 따라 학교를 중단하였다(구자경, 2003)[36]. 따라서 학업스트레스는 또래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래관계는 학업중단의도를 상승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볼 때 또래관계는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중단의도와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2.4 그릿의 조절역할

많은 학자들이 성공에 영향을 주는 심리를 찾는데 관심을 가졌다. 그 중 한 사람이 Duckworth(2006)[17]이다. 그녀는 지능지수는 낮는데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에 관심을 갖고 연구한 결과 그릿(grit)을 발견하였다.

그릿은 장기 목표를 향한 열정과 끈기로 정의되는데 (Duckworth, Peterson, Matthews, & Kelly, 2007)[37], 재능을 초월하여 도전적인 영역에서 성공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밝혀냈다. 미국 육군사관학교 후보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그릿은 사관학교를 지원할 때의 성적(주로 고등학교 학업성적으로 구성)보다 여름 캠프(탈락율이 높은 육군사관학교 훈련 프로그램)를 더 많이 예측하였으며(Duckworth & Quinn, 2009)[18], 성인 1,134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그릿은 높은 업무 성과를 예측하였고(Suzuki, Tamesue, Asahi, & Ishikawa, 2015)[38], 일생동안 달성한 교육의 양과 비례하였다(Duckworth & Quinn, 2009)[18]. 또한 미국 공립학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성실성, 학습동기 및 개인차가 있는 변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그릿이 고등학교 졸업률 가장 높게 예측하였으며(Eskreis-Winkler, Shulman, Beal, & Duckworth, 2014)[39], 724명의 약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그릿은 높은 학업 성취도를 예측하였다(Pate, Payakachat et al., 2017)[40]. 즉 그릿은 끈기와 열정으로 장기목표를 향하여 노력하는 특성을 갖는 변인으로 학업중단의도 및 학업중단과는 반대의 속성을 지닌다.

그릿의 높고 낮음에 따라 변인간 관계가 달라지는 그릿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다. 그릿은 청소년들의 팬덤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켰으며(Kang & Lee, 2022)[41], 보육교사

의 감사성향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증가시켰다(Kim, Hwang & Lee, 2022)[42]. 따라서 그것이 다수의 연구에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그릿은 자아존중감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상승시키고, 나아가서 학업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를 경유하여 학업중단의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켜 학업중단의도를 줄여주는 조절된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연구모형은 PROCESS macro ver. 4.2의 model 91번인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절차에 따라 Fig. 1과 같이 설정하였다. 이 모형은 첫째,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가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중단의도와의 관계에서 이중 매개역할(간접효과)을 하고, 둘째, 그릿은 자아존중감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며(조건부 효과), 셋째, 그릿은 학업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를 경유하여 학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된 매개(조건부 간접효과)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분석과정에서 매개변수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젠더, 연령, 거주지, 학년, 성적, 아르바이트 경험 및 가정소득수준은 통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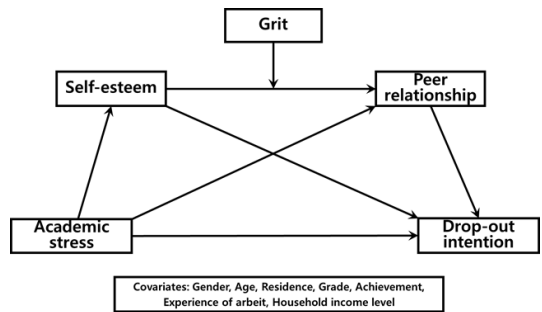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3.2 조사대상

연구대상 지역은 편의표집한 충남의 3개 시·군인 H군, S시, Y군이었고, 조사대상 고등학교는 3개 시·군에서 1개교씩 지역별, 성별 및 학년이 고루 분포하도록 선

정하여 전체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오프라인으로 하였고, 조사는 2022년 12월에 연구자가 각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장 및 담임교사에게 설문의 취지를 설명하고 조사를 승낙받았다. 그다음 학생들에게 설문의 취지를 설명하고, 오프라인 연구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후 동意的한 학생에게 설문지를 배포하고 즉시 회수하였다. 응답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5천 원 상당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최종분석에 사용한 설문지는 283부였다.

조사대상은 남자가 65.0%로 여자 35.0%보다 많았고, 연령은 16~20세까지 분포(M=17.8)하였으며, 학년은 1학년이 59.9%로 가장 많았다. 거주지는 시내권 33.6%, 근교 15.2%, 농촌 51.2%였으며, 성적은 중간이 61.5%로 가장 많았다. 아르바이트 경험은 현재하고 있다는 응답이 14.8%, 전에 했으나 현재는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3.4%, 지금까지 해본 적 없다는 응답이 61.7%였다. 가정의 소득수준은 보통이라는 응답이 70.6%로 가장 많았다.

3.3 조사도구

(1) 학업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는 오미향과 천성문(1994)의 학업스트레스 척도 38문항 중 본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공부 스트레스 요인의 9문항만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공부를 해야 하지만 하기가 싫다’, ‘숙제나 과제가 너무 많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으로 5점 Likert 척도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스트레스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학업스트레스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766이었다.

(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척도는 Rosenberg(1965)[30]가 개발한 Self-Esteem Scale(RSE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등 전체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항상 그렇다” 5점으로 5점 Likert 척도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을 존중하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41이다.

(3) 그릿

Duckworth와 Quinn(2009)[18]이 개발한 그릿 단축형 척도(Grit-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나는 목표가 있어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목표를 찾는다(역산문항)”, “이미 진행 중인 일이 있더라도 중단하고 새로운 일로 변경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역산문항)” 등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으로 5점 Likert 척도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장기목표에 대한 열정과 끈기가 높음을 의미한다. 그릿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644이다.

(4) 또래관계

또래관계는 배성만 등(2015)[43]이 개발한 또래관계의 질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친구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낸다”, “친구들은 속상하고 힘든 일을 나에게 털어놓는다” 등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으로 5점 Likert 척도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관계의 질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또래관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05이었다.

(5) 학업중단의도

학업중단의도는 Slick과 Lee(2014)[44]가 사용한 잠재적 학업중단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나는 가끔 학교를 그만둘까 생각한다.”, “나는 학업을 중단하는 것을 생각해 본 적 있다” 등 전체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으로 5점 Likert 척도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중단의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학업중단의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53이었다.

(6)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매개변수와 종속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예측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들은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통제변수는 젠더, 연령, 거주지(시내권, 근교, 농촌), 학년, 성적(상, 중 하), 아르바이트 경험(현재 하고 있다, 전에 한 적 있다,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가정소득(부족, 보통, 넉넉)이다.

(7) 자료분석

자료는 SPSS PC+ Win. ver. 25.0과 SPSS PROCESS macro ver. 4.2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기초 분석을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해 내적 일관성 계수인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주요 변인들 간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 이변량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의 91번 모델의 분석 절차에 따라 분석하였다.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은 부트스트랩을 활용하였고, 신뢰 수준은 95%, 샘플 수는 5,000개로 지정하였으며, 조건부 효과는 3개의 조건(M±SD, M)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시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는 평균중심화하였다.

4. 연구결과

4.1 상관분석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학업스트레스, 자아존중감, 그릿, 또래관계 및 학업중단의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학업스트레스는 자아존중감($r=-.242, p<.01$), 그릿($r=-.373, p<.01$), 또래관계($r=-.213, p<.01$)와는 유의미한 부적인 상관관계를, 학업중단의도($r=.324, p<.01$)와는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자아존중감은 그릿($r=.389, p<.01$), 또래관계($r=.266, p<.01$)와는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학업중단의도($r=-.238, p<.01$)와는 유의미한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릿은 또래관계($r=.184, p<.01$)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학업중단의도($r=-.315, p<.01$)와는 유의미한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리고 또래관계는 학업중단의도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r=-.247, p<.01$)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상관계수가 모두 .7보다 낮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기술통계분석 결과 학업스트레스, 자아존중감, 그릿, 또래관계는 중간 점수인 3점보다 높았으나 학업중단의도는 중간 점수보다 낮았다. 자료의 정규분포도를 파악할 수 있는 첨도와 왜도 값은 각 .018~.575 및 .276~1.195로 5와 7보다 낮아 정규성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Curran, West, & Finch, 1996)[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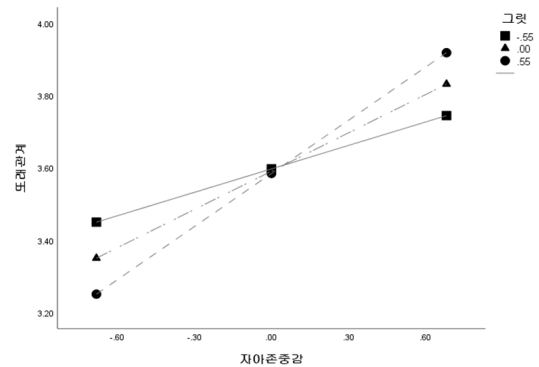
(Table 1)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and descriptive statistics of major variables

	Academic stress	Self-esteem	Grit	Peer relationship	Drop-out intention
Academic stress	1				
Self-esteem	-.242**	1			
Grit	-.373**	.389**	1		
Peer relationship	-.213**	.266**	.184**	1	
Drop-out intention	.324**	-.238**	-.315**	-.247**	1
M	3.015	3.504	3.167	3.627	2.305
Sd	.634	.681	.550	.556	1.214
Skewness	.323	.018	.429	.184	.575
Kurtosis	1.195	-.276	.936	-.548	-.744

**p<.01

4.2 조절된 매개효과 결과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을 위하여 Hayes(2017)[46]가 제안한 SPSS PROCESS macro 4.2의 모델 91번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Fig. 2, Table 2, Table 3에 제시하였다.



[Fig. 2] Moderating effect of grit in moderated mediation model

매개변수모형에서 학업스트레스는 자아존중감에 부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2635, $p<.001$), 또래관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0899, $p>.05$).

<Table 2> Analysis of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grit

Variable	Mediating variable model (DV: self-esteem)			Mediating variable model (DV: peer relationship)			Dependent variable model (DV: drop-out intention)			
	Coeffect	SE	t-value	Coeffect	SE	t-value	Coeffect	SE	t-value	
Constant	1.0569	1.4131	.7479	2.3554	1.0197	2.3098*	3.2702	2.3452	1.3944	
Academic stress	-.2635	.0634	-4.1556***	-.0899	.0494	-1.8187	.4966	.1082	4.5896***	
Self-esteem				.3530	.0459	7.6938***	-.0918	.1106	-.8301	
Peer relationship							-.4843	.1366	-3.5465***	
Grit				-.0114	.0596	-.1913				
Self-esteem × Grit				.2486	.0715	3.4782***				
Highest order test	R ² change				.0310					
	F				12.0979***					
Control variable	Gender	-.1192	.0846	-1.4093	.3017	.0612	4.9286***	.6124	.1454	4.2126***
	Age	-.0226	.0811	-.2784	.599	.0585	1.0239	-.0882	.1339	-.6586
	Residence	-.0230	.0442	-.5204	.0172	.0319	.5401	.1321	.0729	1.8123
	Grade	.0203	.0442	-.5204	-.0945	.0635	-1.4425	-.1322	.1508	-.8764
	Academic record	.0514	.0656	.7836	.0713	.0471	1.5126	.0122	.1085	.1128
	Experience of arbeit	-.0623	.0647	-.9628	-.0014	.0468	-.0303	-.0235	.1068	-.2198
	Economic level	.1722	.0728	2.3663*	.0093	.0529	.1764	-.0016	.1210	-.0133
Model summary	R ²	.0924			.3076			.2326		
	F	3.4722***			10.9044***			8.2130***		
Conditional effect of self-esteem according to grit										
Grit	Effect(B)	SE	t-value	LLCI	ULCI					
-.5507(M-1SD)	.2161	.0599	3.6067***	.0981	.3340					
.0000(M)	.3530	.0459	7.6838***	.2625	.4434					
.5507(M+SD)	.4898	.0611	8.0288***	.3696	.6100					
Significance area of conditional effect by Johnson-Neyman										
grit	% below			% above						
-.8309	4.6099			95.3901						
Significance area of conditional effect of self-esteem according to grit										
Grit	Effect(B)	SE	t-value	LLCI	ULCI					
-1.5426	-.0305	.1186	-.2568	-.2640	.2031					
⋮										
-.9176	.1249	.0793	1.5742	-.0313	.2811					
-.8309	.1464	.0744	1.9688	.0000	.2929					
-.7613	.1637	.0705	2.3215*	.0249	.3026					
⋮										
1.5824	.7463	.1229	6.0739***	.5044	.9882					

*p<.05, **p<.01, ***p<.001

종속변수모형에서 학업스트레스는 학업중단의도에 정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4966, p<.001). 첫 번째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은 또래관계에 정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으나(.3530, p<.001), 학업중단의도에는 유의미

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0918, p>.05). 두 번째 매개변수인 또래관계는 학업중단의도에 부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4843, p<.001).

조절변수인 grit은 또래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Table 3> Direct, unconditional and conditional indirect effects

Conditional indirect effect (academic stress→self-esteem→peer relationship→drop-out intention)				
Grit	Effect	BootSE	BootLLCI*	BootULCI**
-.5507(M-1SD)	.0276	.0133	.0068	.0575
.0000(M)	.0450	.0184	.0149	.0860
.5507(M+SD)	.0625	.0268	.0199	.1238
index of moderated mediation effect				
Grit	Index	BootSE	BootLLCI*	BootULCI**
	.0317	.0188	.0056	.0776

*p<.05, **p<.01, ***p<.001

*LLCI=Lower limit within the 95% confidence interval of boot, **ULCI=Upper limit within the 95% confidence interval of boot

치지 않았으나(-.0114, p>.05), 자아존중감과 그것의 상호작용 항은 또래관계에 정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2486, p<.001) 그것은 자아존중감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였다.

조절변수인 그것의 값에 따른 상호작용 항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조건부 효과를 보면 그것이 낮을 때(M-SD: .2161, .0981~.3340), 그것이 중간일 때(M: .3530, .2625~.4434), 그리고 그것이 높을 때(M+SD: .4898, .3696~.6100) 조건부 효과가 유의미하여 그것은 자아존중감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조절변수인 그것 값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조건부 효과의 유의미한 영역을 파악하기 위해 조명등분석법인 Johnson-Neyman 방법을 적용하였다. 그것 값이 -.8309보다 낮은 영역에서 조절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고, 조사대상자의 4.61%가 이 영역에 해당되었다. 또한 그것이 -.8309보다 높은 영역에서 조절효과가 유의미하였고 조사대상자의 95.39%가 이 영역에 해당되었다.

자아존중감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그것의 조절효과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Fig. 2와 같다. 그것의 3개 조건(M, M±SD)에서 자아존중감이 증가하면 또래관계가 증가하였으나 그것이 높을 때(M+SD)는 증가하는 기울기가 가파르나 반대로 그것이 낮을 때(M-SD)는 높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기울기가 완만하였다. 즉, 자아존중감이 동일하게 증가하더라도 그것이 높은 집단의 또래관계는 더 상승하였으나 그것이 낮은 집단은 상승하는 정도가 낮았다.

학업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를 경유하여 학업중단의도에 이르는 경로에서 직접효과, 비조건부 간접효과, 조건부 간접효과를 분석하였다. 직접효과는 총

효과와 달리 매개변수와 조절변수가 있는 상태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말하며, 간접효과는 매개효과, 그리고 조건부 간접효과는 조건부 효과와 간접효과의 결합인 조절된 매개효과를 지칭한다.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중단의도 간의 직접효과는 .4966(.2836~.7096)으로 95%의 신뢰구간 내에서 부트스트랩 하한값(BootLLCI)과 상한값(BootULCI) 사이에 0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유의미하였다.

학업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을 경유하여 학업중단의도에 이르는 간접효과는 .0242(-.0041~.1037)로 95%의 신뢰구간 내에서 부트스트랩 하한값(BootLLCI)에서 상한값(BootULCI) 사이에 0이 포함되어 있어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자아존중감은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중단의도의 관계에서 매개하지 않았다.

학업스트레스가 또래관계를 경유하여 학업중단의도에 이르는 간접효과는 .0435(-.0401~.1073)로 95%의 신뢰구간 내에서 부트스트랩 하한값(BootLLCI)에서 상한값(BootULCI) 사이에 0이 포함되어 있어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또래관계는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중단의도의 관계에서 매개하지 않았다.

조건부 간접효과는 그것이 낮을 때(.0276, .0068~.0575), 중간일 때 .0450(.0149~.0860), 그리고 높을 때 .0625(.0199~.1238) 세 조건에서 95%의 신뢰구간 내에서 부트스트랩 하한값(BootLLCI)에서 상한값(BootULCI) 사이에 0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유의미하여 조절된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학업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를 경유하여 학업중단의도에 이르는 경로에서 그것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또한 조절된 매개지수도 .0317(.0056~.0776)로 95%의 신

퇴기간 내에서 부트스트랩 하한값(BootLLCI)에서 상한값(BootULCI) 사이에 0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유의미하였다.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 또래관계 및 그릿을 통하여 학업중단의도에 미치는 메카니즘을 파악하여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있으며, 본 연구의 논의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관분석 결과 학업스트레스는 학업중단의도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자아존중감, 그릿, 또래관계와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중단의정적인 관계(서보준, 이진열, 2018; 김령, 임선아, 2021)[7][27], 학업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이 부적인 관계(Michie, Glachan, & Bray, 2001; 노충래, 김설희, 2012)[9][10], 학업스트레스와 또래관계의 부적인 관계(Parker, & Asher, 1987)[16], 학업스트레스와 그릿의 부적인 관계를 밝힌 연구결과(Eskreis-Winkler, Shulman, Beal, & Duckworth, 2014)[39] 등과 맥락을 같이 하였다. 따라서 고등학생들의 학업중단의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자아존중감 향상, 또래관계 증진 및 그릿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중단의도가 높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결과 그릿은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의 영향을 증진시키는 상승역할 뿐만 아니라 학업스트레스→자아존중감→또래관계→학업중단의도의 경로를 조절 매개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릿의 조건부 간접효과는 그릿이 증가할수록 증가하였는데, 이는 조절효과에서 그릿이 높은 집단이 자아존중감이 증가할수록 또래관계가 증가하는 현상과 같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우울이 팬덤활동을 경유하여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그릿이 조절매개하고(Kang & Lee, 2022)[41], 보육교사의 조직무례경험이 스트레스와 감사성향을 경유하여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그릿이 조절 매개한다는 연구결과(Kim, Hwang & Lee, 2022)[42]와 맥락을 같이 한다. 따라서 학업중단의도가 높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기 목표에 대한 열정과 끈기를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고등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가 학업중단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자아존중감, 또래관계 및 그릿이 학업중단의도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중단의도를 조사하였는데, 학업을 실제로 중단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의 심리적 변인을 파악하는 것도 후속연구에서 수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주제가 학업중단의도인 만큼 설문지도 중요하지만 심도 있는 질적 연구가 후속연구에서 필요할 것이다. 학업중단의도의 원인은 무엇이고 대처방안은 무엇인지를 인터뷰 등의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학업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 또래관계 및 그릿을 통하여 학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처음 확인하여 학업중단 관련 지식 축적에 기여하였다는 점에 큰 의의를 둘 수 있다.

References

- [1] 교육부(2022). 2021년 교육통계연보.
- [2] 백혜정, & 임희진. (2014). 학교 밖 청소년 건강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3] Valkov, P. (2018). School dropout and substance use: Consequence or predictor. *Trakia Journal of Sciences*, 16(2), 95.
- [4] Hjorth, C. F., Bilgrav, L., Frandsen, L. S., Overgaard, C., Torp-Pedersen, C., Nielsen, B., & Bøggild, H. (2016). Mental health and school dropout across educational levels and genders: a 48-year follow-up study. *BMC public health*, 16(1), 1-12.
- [5] 윤철경, 최인재, 김승경, & 김성은. (2018).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6] Neely, P., & Griffin-Williams, A. (2013). High school

- dropouts contribute to juvenile delinquency. *Review of Higher Education & Self-Learning*, 6(22).
- [7] 서보준, & 이진열. (2018).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가 학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 *미래청소년학회지*, 15(2), 179-200.
- [8] Rosenberg, M. (1965). Rosenberg self-esteem scale (RSE).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Measures Package*, 61(52), 18.
- [9] Michie, F., Glachan, M., & Bray, D. (2001). An evaluation of factors influencing the academic self-concept, self-esteem and academic stress for direct and re-entry students in higher education. *Educational Psychology*, 21(4), 455-472
- [10] 노충래, & 김설희. (2012). 중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성적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우울불안에 대한 개인요인 및 사회적 지지요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39), 39-68.
- [11] Allen, J. P., Hauser, S. T., Eickholt, C., Bell, K. L., & O'Connor, T. G. (1994). Autonomy and relatedness in family interactions as predictors of expressions of negative adolescent affect.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4(4), 535-552.
- [12] 이경상. (2011). 시설청소년의 자립준비실태. *청소년학연구*, 18(10), 341-362.
- [13] 이지현, & 이정윤. (2009). 학교상담: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 부모 및 또래와의 관계와 인지왜곡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0(2), 1113-1126.
- [14] 장영애, & 이영자. (2015). 청소년의 행복감과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또래관계, 학업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청소년시설환경*, 13(4), 147-156.
- [15] 은임선. (2015). 특성화고 고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이 잠재적 학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 [16] Parker, J. G., & Asher, S. R. (1987). Peer relations and later personal adjustment: Are low-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3), 357.
- [17] Duckworth, R. A. (2006). Behavioral correlations across breeding contexts provide a mechanism for a cost of aggression. *Behavioral Ecology*, 17(6), 1011-1019.
- [18] Duckworth, A. L., & Quinn, P. D. (2009).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hort Grit Scale (GRIT-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91(2), 166-174.
- [19] 교육부(2022). 2021년 교육통계연보.
- [20] 정태화. (2002). 미국에서의 전문대학 학생유지 연구에 관한 시사점 분석: 재학생 감소 시기를 중심으로. *직업교육연구*, 21(2), 327-342.
- [21] 김로라, & 이조경. (2016). 청소년의 학업중단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및 보호요인에 관한 연구: 부산지역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3(9), 53-81.
- [22] 박한샘. (2017). 지방대학 신입생의 학업중단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 423-442.
- [23] 성윤숙. (2005). 학교중도탈락 청소년의 중퇴과정과 적응에 관한 탐색. *한국청소년연구*, 16(2), 295-343.
- [24] 아영아 & 정원철. (2011).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학교부적응 관계에서 인터넷중독의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18(2), 27-50.
- [25] Kumaraswamy, N. (2013). Academic stress, anxiety and depression among college students: A brief review. *International review of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5(1), 135-143.
- [26] 오미향, & 천성문. (1994).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 요인 및 증상분석과 그 감소를 위한 명상훈련의 효과. *서강대학교 학생상담연구소 인간이해*, 15, 63-96.
- [27] 김령, & 임선아. (2021). 중국유학생의 학업스트레스, 외로움, 언어능력, 자기효능감과 학업중단의도의 구조적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5), 705-717.
- [28] 이자영, 강석영, 김한주, 이유영, & 양은주. (2010). 학업중단 위기청소년이 지각한 학업중단의 위험 및 보호요인 탐색: 개념도 연구법의 활용. [KYCI] *청소년상담연구*, 225-241.
- [29] 안현의, 이소영, & 권해수. (2002). 학교 중도탈락 청소년의 욕구와 심리적 경험 조사.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 19-31.
- [30] Rosenberg, M. (1965). Rosenberg self-esteem scale. *Journal of Religion and Health*.
- [31] 최명심, & 손정락. (2007). 삶의 의미 수준이 자존감, 문제해결 인식도 및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2(4), 951-967.

[32] Brockner, J. (1979). The effects of self-esteem, success-failure, and self-consciousness on task perform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10), 1732.

[33] 이경상. (2011). 청소년 학교부적응의 중단적 변화의 영향요인. *청소년학연구*, 18(12), 131-155.

[34] Santrock, J. W. (1990). *Adolescence . USA*: Wm. C.

[35] Berndt, T. J. (1979). Developmental changes in conformity to peers and par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15(6), 608.

[36] 구자경. (2003).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이 학교자퇴생각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0(3), 309-330.

[37] Duckworth, A. L., Peterson, C., Matthews, M. D., & Kelly, D. R. (2007). Grit: Perseverance and passion for long-term go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6), 1087.

[38] Suzuki, Y., Tamesue, D., Asahi, K., & Ishikawa, Y. (2015). Grit and work engagement: A cross-sectional study. *PLoS One*, 10(9), e0137501.

[39] Eskreis-Winkler, L., Shulman, E. P., Beal, S. A., & Duckworth, A. L. (2014). The grit effect: Predicting retention in the military, the workplace, school and marriage. *Frontiers in Psychology*, 5, 36.

[40] Pate, A. N., Payakachat, N., Harrell, T. K., Pate, K. A., Caldwell, D. J., & Franks, A. M. (2017). Measurement of grit and correlation to student pharmacist academic performance. *American Journal of Pharmaceutical Education*, 81(6).

[41] Kang, E. S., & Lee, C. S. (2022). The effect of depression and fandom activity on life satisfaction in adolescents: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grit. *Specialis Ugdymas*, 1(43), 4866-4878.

[42] Kim, S. H., Hwang, Y. K., & Lee, C. S. (2022). Dual mediating effects of job stress and gratitud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incivility and life satisfaction of child-care teachers: a moderated mediation role of grit. *Перспективы Науки и Образования*, (2 (56)), 478-490.

[43] 배성만, 홍지영, & 현명호. (2015). 청소년 또래관계 질 척도의 타당화 연구. *청소년학연구*, 22(5), 325-344.

[44] Slick, S. N., & Lee, C. S. (2014). The relative levels

of grit and their relationship with potential dropping-out and university adjustment of foreign students in Korea.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2(8), 61-66.

[45]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

[46] Hayes, A. F. (2017).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Guilford publications.

박혜진(Hye Jin Park)



- 2014년 3월~2016년 8월: 선문대학교 교육상담학과(심리학 석사)
- 2017년 3월~2020년 2월: 선문대학교 교육상담학과 (교육상담학 박사 수료)
- 관심분야 : 상담심리
- E-Mail: jincfa3@hanmail.net

이창식(Chang Seek Lee)



- 1993년 2월~현재 : 한서대학교 교수
- 2010년 3월~현재 : 한서대학교 다문화교육복지연구소 소장
- 관심분야 : 평생교육, 느린 학습자
- E-Mail: lee1246@hanmail.net